

대전시립무용단 제73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 평 호

로미오

& 줄리엣

유성과 예랑

2023. 6. 2.(금) 19:30 대전예술의전당

2023. 6. 3.(토) 17:00 아트홀

주최  대전광역시 대전MBC 주관 대전시립무용단

: 예술감독 인사말

달을 닮은 사람들..!

달을 머리 위 얹고 사는 사람들..!

달을 노래 삼고 온몸으로 달을 그리는 사람들..!

로미오 & 줄리엣 — 유성과 예랑

창작의 고통..! 그 위대함..!

줄광대 줄 위 선 듯 서 있으면 살아 있고, 떨어지면 천길 만길 나락..

그 줄은 관객이고, 또 열 달 산고 끝에 얻어지는 천진한 아이의 생동 하는 생명..!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평호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컬(Glocal)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로미오 & 줄리엣>을 한국적 정서와 몸짓을 담아 유성과 예랑으로 관객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마지막 오늘을 산듯한 2년 그리고 ...!

첫 번째 창작 작품은 대전 지역 출신으로 민족 독립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 온몸을 던지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꿈하늘”을 담은 서사 무용극 “천몽”을 시작으로, 고(故)신건이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비춰진 대전의 근대사인 3·8 대전 학생 민주화 운동을 댄스컬로 창작했으며, 춤극 오페레타 “월인천강지곡”으로 세종과 소헌황후의 불멸의 사랑을 작품화해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로미오 & 줄리엣 — 유성과 예랑>은 세계 속의 대전, 대전 속의 세계를 담고자 원작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공간을 대전 도솔산 아래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웃다리 풍물을 하는 집안으로 설정, 작은 갈등으로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갈라선 두 마을 사이로 사랑이 운명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파국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화해케 하는 슬픈 로맨틱 춤극입니다.

이번 작품은 무대 공간을 수많은 달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머리 위 리본을 돌리는 민족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모입니다. 상모는 우주를 그리고 달을 그리며 소원을 빕니다. 새해 벽두부터 돌리기 시작한 상모는 단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자 성취이기도 합니다.

저는 별을 그리고 어머니 품속 같은 달을 좋아합니다.

운명 같은 미장센의 달..!

7~8년 전쯤 임오섭 작가가 제게 안겨준 달로 다가왔으며, 그 달 위에 긴 시간 고뇌해 감동의 음악을 지어준 조석연 작곡가와 노현식 교수의 섬세한 연출의 협업은 서로의 역할에서 탁월합니다. 환상의 날개를 주신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와 열악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신재웅 줄광대와 연주단, 테너 권순찬, 메조소프라노 고은희의 혼을 부르는 소리와 합창단의 혼신에 감동합니다. 또,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김광훈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선장과 함께 항해를 마다않고 손 발이 되어준 김지원·구서영 조안무, 상모 돌리기에 매진(邁進)한 단원들과 사무국에 고마움을 전하며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달잔치에 나섭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마지막 주 D-7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 평 호



김 평 호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Pyeongho Kim
Artistic Director and Principal Choreographer

감성이 충만한 춤으로 역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작품, 시대의 영혼이 살아있는 감동의 무대... 예술적 창의력은 위대하다.

김평호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는 樂, 歌, 舞一體의 가치를 표방하며, 수많은 예술적 경험들과 다양한 노하우의 축적으로 전천후 예술가로서 큰 예술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단원으로 출발해 지도위원, 훈련장 등의 역할과 창원, 청주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로서 수많은 작품의 안무와 공연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또한 중국 동북사범대학과 경주 대학교에서 교수로서도 교육자의 역량과 김평호류 ‘남도 소고춤’ 브랜드 개발로 한국무용의 교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넓은 활동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춤과 춤극, 오페라, 뮤지컬, 연극, 창극, 다양한 축제 등의 안무와 연출로 꾸준히 무대를 확장해 왔으며, 한국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패러다임 확립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리더십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 목표와 가치를 확고하게 한다.

운영의 가치는 三位一體(감독, 행정, 단원) 조화로움을 기본으로 삼고 열린 구조의 수평적 소통을 하였으며, 창작의 아이덴티티는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내면의 깊이를 통한 유의미한 현상을 극대화, 진정성을 담은 작품을 추구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춤꾼과 안무가로서 광대적 기질과 창작자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크리에이터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미래를 열어갈 한국 예술의 중심!

한국무용의 중심으로 도약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전시립무용단!!!

1985년 창단된 대전시립무용단은 1990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속축전 참가를 시작으로 프랑스 디종 축제,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호주, 세르비아, 이탈리아 등 각종 국제 페스티벌 행사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2011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중국의 서안과 항저우에서 한국의 매력적인 춤사위로 중국 대륙을 감탄 시키며 우리 춤 국제 브랜드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2016년 외교부 주최 스페인 수교 50주년 기념 주요 외교 계기 기념 문화행사에 한국 대표 무용단으로 선정되어 스페인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진수를 선보이며 세계인에게 지역 무용단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시립무용단은 38년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대전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과학, 문화, 행정, 교통중심도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연간 50여 회의 공연으로 지역 춤 문화 발전을 견인하며, 한국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전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문화예술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2021년 김평호 예술감독 영입으로 한국무용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한국인의 숨결 속에 감추어진 역동성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작품의도 및 줄거리

2023년 대전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춤극 ‘유성과 예랑’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 & 줄리엣’을 원형으로 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 예술적 요소를 활용한 창작 무용 작품이다.

이 작품의 미장센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비극적 사랑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사용함으로써 작은 의견 차이로 갈라진 두마을의 다툼과 싸움 사이에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을 통해 대립하던 두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전시립무용단은 이번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갈등과 쟁점들로 인해 진영을 나누어 대립하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슬픈 현실을 어떻게 화해로 극복하고 치유하여 평화와 공존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자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작은 마을! 어느날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동쪽과 서쪽 마을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다투고 증오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유성’과 ‘예랑’은 마을이 나누어 지면서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금기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운명보다 강렬한 사랑의 힘은 둘을 다시 만나게 하고, 금기를 깬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은 잔인한 형벌이 된다.

‘예랑’은 사랑하는 ‘유성’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유성’ 또한 ‘예랑’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다. ‘유성’과 ‘예랑’의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의 힘으로 갈라졌던 두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된다.



: 프로그램

프롤로그 줄다리기

한밭 도솔산 아래 어디엔가 있는 작은 마을! 어느 날부터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로 나누어져 사사건건 대립하고 다투게 된다.

제1장 신성한 느티나무와 숲의 정령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느티나무와 숲을 지키는 정령들! 두 마을로 나누어져 다투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제2장 제의(祭儀)

신성한 느티나무를 찾아와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사람들! 그러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결국 분노하는 느티나무 정령!

제3장 달잔치

한가위! 도솔산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자 사람들은 잠시 다툼을 잊고 신명나는 달잔치를 벌인다.

제4장 대결

흥겨운 달 잔치도 결국 두 마을 사람들의 대결로 얼룩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는 점점 화해 불가한 앙숙이 되어가지만, 동쪽 마을 촌장 아들 유성과 서쪽 마을 촌장 딸 예랑은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제5장 사랑의 문(Moon)

서로 앙숙지간인 집안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성과 예랑의 사랑은 현실과 관습을 초월해 점점 더 깊어져만 간다.

제6장 열애

맺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지만 타오르는 불꽃처럼 멈출 수 없는 유성과 예랑의 운명적인 사랑!

제7장 파국

예랑과 유성의 관계를 알게 된 예랑 아버지의 분노! 쫓기는 유성은 실수로 예랑의 사촌을 살해하게 된다.

제8장 추방

넘어서는 안 될 경계, 아름다운 예랑을 탐한 죄,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지은 유성은 사랑하는 예랑을 두고 마을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제9장 비극

유성을 그리워하는 예랑을 위해 죽은 듯이 잠드는 묘약을 전해주는 숲의 정령들!

제10장 죽음 그리고 이별

유성과 예랑의 죽음 앞에서 화해하는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사람들

에필로그 달잔치

시간이 흘러 다시 한가위! 도솔산 위로 보름달이 두둥실 뜨자,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사람들은 둥근 달을 상징하는 상모를 돌리며 다시 하나가 되는 달잔치를 시작한다.

로미오 & 줄리엣

유성과 예랑



: 출연진

유성 | 2일



이현수

예랑 |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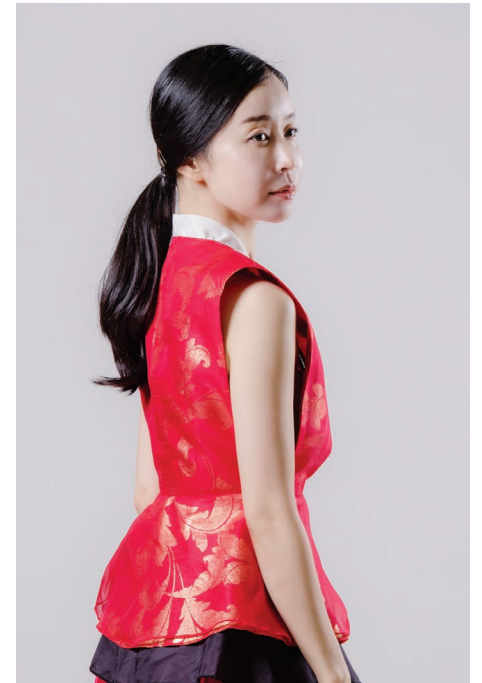
서예린

유성 | 3일



김임중

예랑 | 3일



이지영

상쇠 (유성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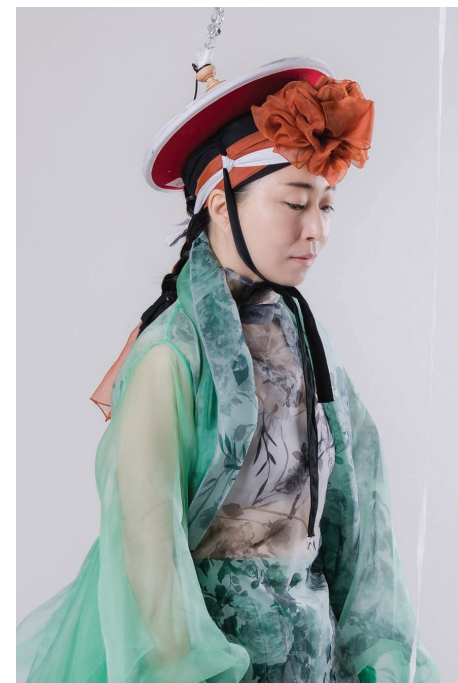
복성수

상장구 (예랑 아버지)



배진모

느티나무 정령



육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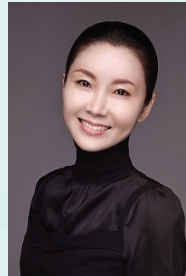
촌장



김기석

: 출연진

대전시립무용단 연습지도자 · 조안무



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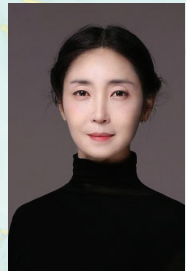
· 창작공연 No-Ri, 토생전,
옹고집전 등 다수 안무
· 우봉 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
특상(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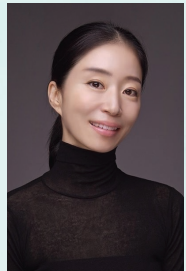
구서영

· 대전시립무용단원,
경기도립무용단 수석단원 역임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강사 역임

수석



강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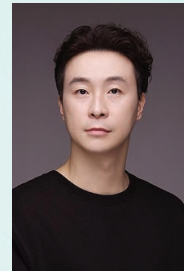
육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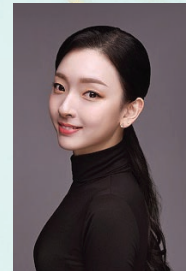
이지영



이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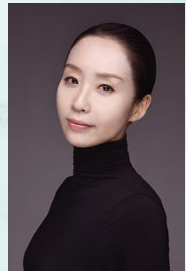


김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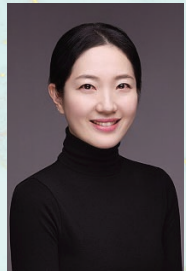


서예린

부수석



유미선



유재현



오송란



장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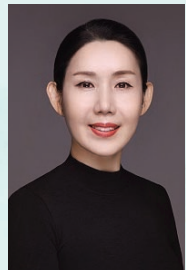


배진모



김창은

상임



이미자



복성수



정명지



김한덕



김희영



곽영희

상임



류은정



김수진



장영희



구재홍



정인선



정세연



임자영



김설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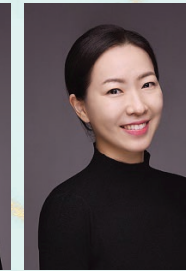
이유라



김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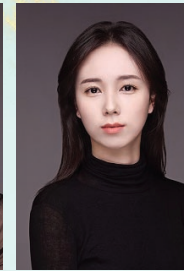
복민선



유아리



임희정



이윤정



김민중



장재훈

비상임



정지욱



나소연



김태린



김연지

DAEJEON
METROPOLITAN
DANCE THEATER

: 출연진



작곡 및 지휘 조석연

꿈결, 그리움, 눈물, 떠나갈 운명, 끝나지 않을 기다림..... 이 작품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과 노래 위에 춤을 추며, 스스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꿈결” 같은 아름다움은 “그리움”이었고, “그리움”은 “눈물”이 되고,
“눈물”은 “기다림”이었으며, “기다림”은 “운명”이 되고, “운명”은 더 없을.....,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작곡과 졸업
- 독일 Rostock 국립음악대학 석사 및 예술최고학위 졸업
- 독일 Bernstein 작곡상 수상
- 부천문화재단 이사
- 현, 경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줄광대 신재웅

- 2022년 청와대 국민 품으로... 날아라 줄광대 공연
- 2022년 천년의 꿈 줄광대의 화려한 비상 공연
-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졸업
- 2023년 현,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이수자



대본 임오섭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에 담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2021 상설공연 “바우덕이던” 연출
- 천안시립풍물단 2021 정기공연 “뮤지컬 아우내” 등 연출
-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제4회 정기공연 “너른골 유람기” 연출
- 수원시민뮤지컬 “나무아이”, “그날의 울림” 등 다수의 작품 연출



테너 권순찬

- 목원대학교 성악과 졸업
-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석사(MM), 최고연주자(AD), 박사(DMA) 전액 장학 졸업
-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등 20여 편의 주, 조역 출연
- 현) 목원대학교 성악뮤지컬학부 외래교수 및 전문연주자



연출 노현식

춤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풀어가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줄광대의 재담과 무용수들의 춤이 어우러져
대전시립무용단의 또다른 여정을 시작한다.

- 창원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역임
- 경기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역임
- 구미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역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협력안무자
- 현, 국립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메조소프라노 고은희

- 숙명여대 성악과 및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 오페라 마술피리, 바스티엔 바스티엔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언버벌 퍼포먼스 셰프 등 출연

합창



소프라노 서영미 알토 이호정 테너 신하섭 베이스 이상울

오케스트라

악장



김성현

바이올린 I



유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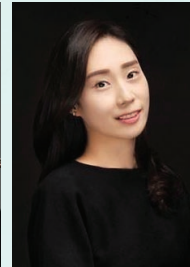
바이올린 II



박은경



이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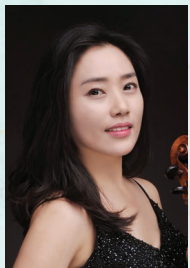


이수연

비올라



정소진



김윤정

첼로



이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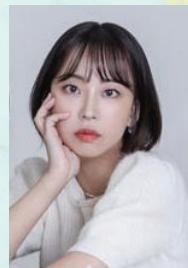
김가영

콘트라베이스



김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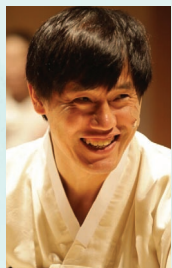
팀파니



송다은

국악기

음악감독/장구



김준모

소금/대금



김진석

피리/태평소



김한성

해금



전예슬

가야금



안희주

거문고



최유빈

타악



심준보

STAFF



무대감독
한희태



음향감독
김성욱



조명감독
이유진



영상감독
우기하



무대디자인
박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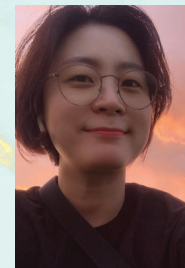
영상디자인
한지원



의상디자인
민천홍



컴퓨터 음악제작
박주희



무대제작
쇼먼트 김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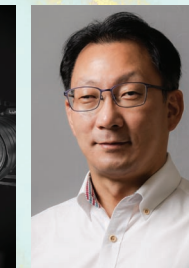
분장
소인경 아트폼



소품
황태진



영상촬영
김희돈



사진촬영
강병삼

무대진행 김지연 김경택 이동희 신현섭

음향진행 한상규 최아름

공연진행 장가림 정수아

사무국

사무국장 고은랑
홍보담당 송은교

기획팀장 명희성
의상담당 문다비

마케팅담당 신미영

: 스태프

대전시립무용단 유료멤버십 안내

가입혜택 하나. 일 년 동안 모든 공연이 공짜!
둘. 동반자 30%할인
셋. 공연소식 우편, 문자 수령

▶ 가입비

개인회원 : 1인 기준 20,000원

가족회원 : 1인당 18,000원(10% 할인, 2인 이상)

단체회원 : 1인당 16,000원(20% 할인, 5인 이상)

▶ 가입방법

대전시립무용단 홈페이지>멤버십>유료멤버십 가입하기

※ 홈페이지 가입 후 유료멤버십 가입 절차 진행

▶ 가입문의

대전시립무용단 마케팅담당 신미영 042-270-8354

다음공연안내

기획공연Ⅳ

한 여름밤 댄스 페스티벌

2023.07.27.(목) ~ 07.29.(토) 20:00

대전시립미술관 분수대 특설무대



dmdt.artdj.kr



대전시립무용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대전예술의전당 내
문의 042)270-8353~5